

환경부 보도자료

2004년 8월 18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

- ☐ '04. 8. 배포
- ☐ 사진 없음
- ☐ 총 6쪽

상하수도국 토양수질관리과	임종현 과 장 손혜옥 사무관	전화 (메일)	02-2110-6772 s5803w@me.go.kr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폐금속광산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

- ◇ 폐금속광산에 대하여 현행 조사와 복원사업에서 조사·복원 사업, 사후관리, 주민건강조사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
- ◇ 관계기관별 업무추진 Net Work를 구성하여 상호협조체계 구축

- ☐ 환경부는 경남의 삼산제일광산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 복원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되어온 폐금속광산 복원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「폐금속광산 주변 토양관리종합계획」을 수립·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지금까지 폐금속광산지역의 산재한 광미·갱내수 폐석으로 주변 농경지, 하천등의 오염여부를 조사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
- 폐금속광산 주변의 토양오염범위가 농경지, 하천수, 지하수 등 뿐만 아니라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작물에까지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건강 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
- 폐금속광산주변의 토양관리는 오염된 토양의 조사·복원에서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작물과 주민건강조사, 복원사업 완료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하였다.
- ☐ 이번에 시행하는 「폐금속광산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」의 주요 내용은

-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폐금속광산지역의 조사는 전국 906개 폐금속광산중 219개는 2006년까지 정밀조사를 완료하고
 - 나머지 687개 폐금속광산은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개황조사를 실시한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광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추진토록 하였다.
- 산업자원부는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시 폐금속광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가행(稼行)광산 지역은 광미, 갯내수 등에 대한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,
- 농림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사업비를 지원하고 폐금속광산주변 농작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하여 토양기준 초과시 객토, 복토, 휴경을 유도토록 하였다.
- 지방자치단체에서는
 - 폐금속광산 정밀조사결과 토양오염기준초과 농경지에 농작물을 경작 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 공해병 의심환자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국립환경연구원(환경역학과)에서 정밀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,
 - 폐금속광산 복원사업 완료후 5년간 토양, 하천수, 지하수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 그 결과 복원사업 미비등으로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시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.
- 또한 관계부처간의 상호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을 단장으로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 담당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관계기관별 업무추진을 위한 Net Work를 구성하여 폐금속광산에 대한 토양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- 이번에 마련된 「폐금속광산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」을 시행함에 따라 폐금속광산 주변 주민의 건강조사와 복원사업 완료후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폐금속광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.

〈참고자료〉

첨부 :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(요약)

<붙임>

폐금속광산 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(요약)

□ 필요성

- 현재 오염된 토양의 조사복원에서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작물과 주민건강조사, 방지사업완료후 사후관리등 전반적인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이 필요함

□ 폐금속광산 토양관리실태

-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태

계	'96년이전	'97 ~ '04	'05 ~ '06
219	10	158	51

※ 전국 906개 폐금속광산중 '06년까지 219개 완료예정이고, 나머지 687개 폐금속광산은 소재지, 정밀조사 필요성 등 현황파악이 미비함

-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실태

-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방지사업이 필요한 92개 광산중 48개소는 방지사업이 완료되었고, 44개소는 미실시

계	토양오염 방지사업 완료				미실시
	소계	환경부	산자부	삼척시	
92	48	25	22	1	44

- '03.11.17 국무조정실에서 폐금속광산 조사업무는 환경부, 광해방지사업은 산자부, 농경지에 대한 객토 및 토양개량사업은 농림부로 업무가 조정됨

□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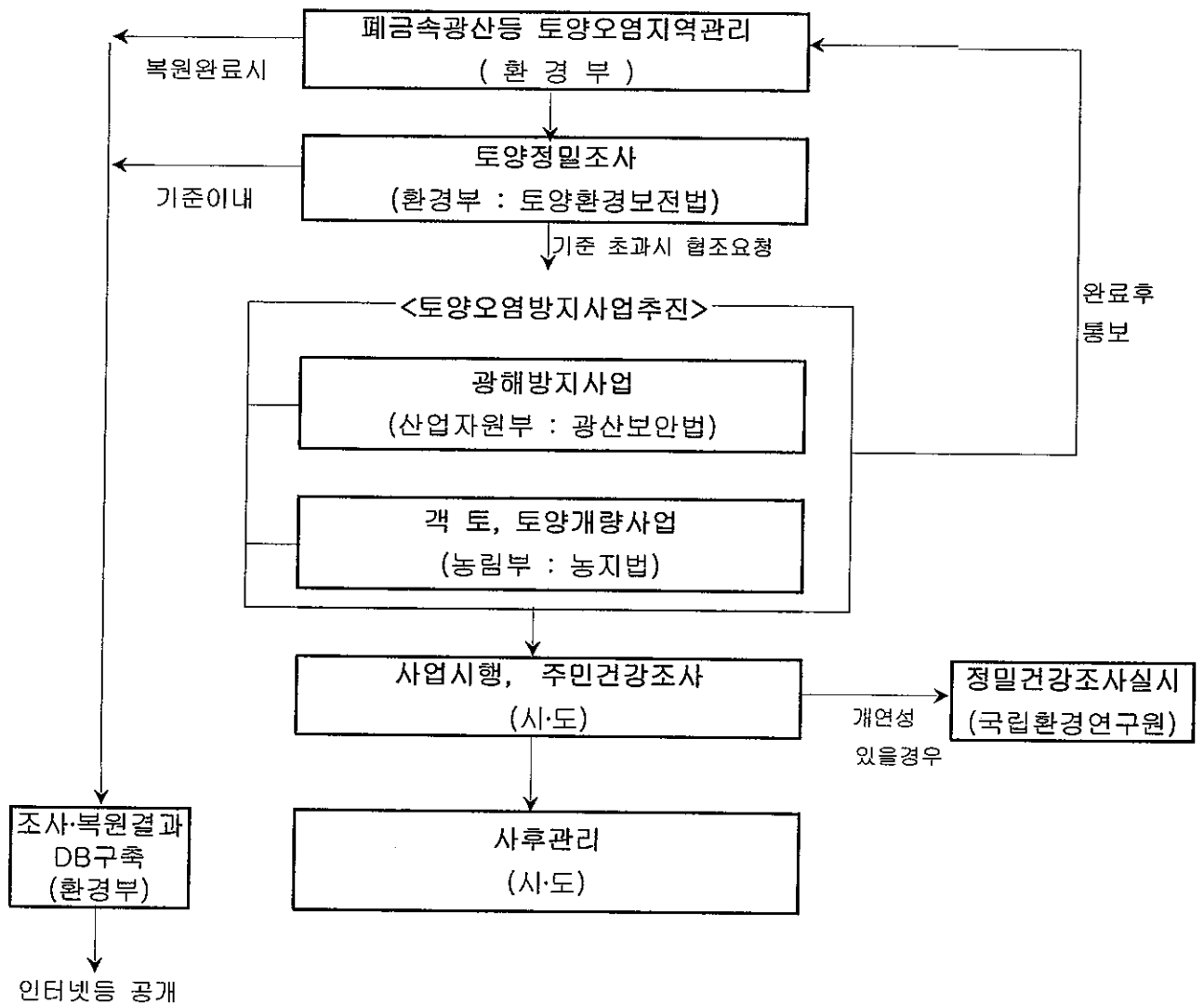
- 전국 906개 폐금속광산중 687개소에 대한 정확한 토양오염실태 파악이 미흡
- 폐금속광산 광해방지사업 소요예산 과다로 사업추진이 지연
(개소당 평균 20 ~ 40억원 소요)
- 폐금속광산지역의 주민피해여부 및 토양오염방지사업 완료후 사후관리체계 미흡

□ 추진계획

〈기본방향〉

- 현행 조사, 복원사업에서 조사·복원사업, 사후관리, 주민건강 조사, 농작물오염 등 종합적인 관리로 전환
- 가능한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토양복원 사업 추진
- 관계기관별 업무추진 Net Work를 구성하여 상호협조체계 구축

1. 추진체계도



2.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정밀조사 (환경부)

- '05~'06년까지 51개 폐금속광산정밀조사 완료, '06까지 정밀조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687개 광산에 대한 개황조사
 - 소요예산 : 11억원
 - ※ 개황조사는 금년도 9월부터 착수 예정 (소요예산 1억원)
- 개황조사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폐금속광산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 수립 시행 ('06년부터 추진)

3. 토양오염방지사업 추진 (산업자원부)

- 폐금속광산 광해방지대책 강구 및 사업비 확보
- 가동중인 광산은 광미, 갱내수 등 유출방지시설 설치 의무화

4. 농경지 토양오염방지사업 추진 (농림부)

- 농경지 토양개량사업추진 및 농작물 안전성조사
- 농작물에대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현재 카드뮴(0.2mg/kg)에서 비소, 납등으로 확대

5. 폐금속광산지역 주민건강조사 (지방자치단체, 국립환경연구원)

- 폐금속광산정밀조사결과 토양오염기준초과 농경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시군보건소가 해당지역 주민건강조사 실시
- 시군보건소에서 건강조사한 결과 공해병 의심환자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국립환경연구원(환경역학과)에서 정밀건강조사 실시

6. 토양오염방지사업 완료후 사후관리체계 구축 (지방자치단체)

- 토양오염 방지사업 완료후 5년간 토양, 하천수, 지하수 등 실태조사
- 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시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

7. 관계기관별 업무추진 Net Work 구성

-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을 단장으로 산자부등 관계기관 담당과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폐금속광산에 대한 토양오염 문제 해결